

'글로벌도시, 미래를 연결하다' 전주미래도시포럼

18~19일 국내외 석학·글로벌 전문가 등 참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모색

전주시에 국내외 석학과 글로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도시 정책성 확립과 다양한 도시문제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전주미래도시포럼을 개최해 도시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 확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도시로 나아갈 정책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18일과 19일 이틀간 전주리한호텔에서 '글로벌도시, 미래를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전주미래도시포럼 2025'를 개최한다.

지난 2023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전주미래도시포럼 2025'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도시가 나아갈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담론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세션은 세계지방정부연합과 공동으로 △문화도시 △도시브랜드 △이혁신 △청년미래(인구위기) △시민미래(친환경교통/신설) 등 총 5가지다.



전주미래도시포럼 2025 포스터

먼저 포럼 첫날인 18일에는 개막행사과 더불어 마리오 산타나 퀴테로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원과 이날 마지막 세션인 '도시브랜드와 디자인, 도시의 재탄생'에서는 도시브랜드의 대가인 장종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유현준 건축가와 도시브랜드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포르투시의 이자벨 모레이바 다실바 홍보부서 총괄책임자, 러셀 케네디 호주 디킨대학교 국제 및 파트너십 담당부회장, 장재희 전주시의원이 참여

해 도시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고 도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된다.

포럼 둘째 날인 19일에는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AI'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 박찬희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도시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함께 논의한다.

이어 최서연 전주시의원이 패널로 참여해 인구위기시대 청년과 도시가 공존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와 실행 아이디어를 나눈다.

김수미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올해로 제3회를 맞는 전주미래도시포럼은 세계 도시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며,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글로벌 도시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전주의 미래를 바꿀 이번 포럼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시, 안전한 통학로 확충

삼천초 부지 내 학생 전용 통학로 조성

전주시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삼천초등학교 부지 내 정문에서 후문까지를 잇는 폭 1.5~3m, 길이 110m 규모의 학생 전용 통학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삼천초등학교 학생

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던 학교 인근 쌍용2단지 부지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학생 통학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시와 전주교육지원청, 삼천초등학교 등 관계기관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시는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대체 통학로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가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건의했다.

그 결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통학로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며, 시는 공유부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조금 지원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했다.

특히 시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새 학기부터 통학로를 안전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는 새로 조성된 통학로의 경우 기존 통학로와는 달리 차량과 보행자 이동 공간이 분리돼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축구팬 위한 1994 특별노선 확대

전주시, 13·20일 전북현대모터스FC 홈경기 최대 규모 운영

전주시에 프로축구 K리그 선수를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FC의 조기 우승을 염원하는 축구팬들을 위해 1994 특별노선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전북현대모터스FC의 조기 우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3일과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홈경기시 시내 주요 거점 경기장을 오가는 1994 특별노선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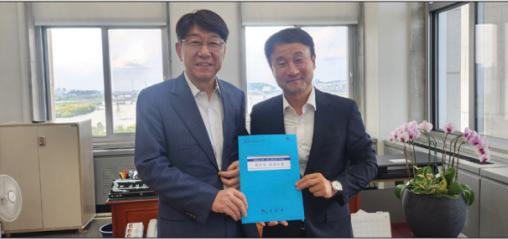
이는 리그 선수를 달리는 전북현대대가 연이은 홈경기 조기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적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대중교통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특히 시는 무더위가 길인 9월 중

펼쳐지는 이 두 경기에 많은 축구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8대~14대였던 친환경 수소버스를 15대까지 늘리고, 혁신·만성지구 방면 운행을 위한 전기마을버스도 기존 1대에서 2대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1994 특별노선을 오는 10월 K리그 정규라운드와 11월 파이널 라운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2025 시즌 종료까지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북현대의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국회를 찾아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 왼쪽부터 우범기 전주시장, 함평도 국회 예결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 예산 확보 총력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정 핵심 과제 추진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했다.

우범기 시장은 4일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우 시장은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 임실군)을,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등 예결위원들에게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우 시장은 또 이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김교홍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안효영 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 안무주), 서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시안) 등을 상대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유학 정신 있는 심신 수양 및 한국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산비문화수련원 건립' △지역 내 콘텐츠 제작 및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AI 융합 전주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전주의 글로벌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전주국제그림책도서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치제 야간문화공간 조성' 등 9개 사업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 정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예산안 확정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시로 방문해 건의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전북자치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열려

일자리를 찾는 전주지역 청·장년층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일자리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구직자를 겪고 있는 청·장년층을 돕고,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5년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채용행사는 △(주)한우물(볶음밥 제조업체) △(주)원지식품(냉동만두 제조업체) △(주)폰드그림(제조 및 도매) △(주)제니엘(도시락 제조업체)

등 4개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 등이 참여했다.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직업상담사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주력했다.

특히 직업상담사는 참여기업의 급여 및 근무 시간과 통근버스 노선 등 구인 조건에 맞춰 구직자 개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면접 대상자가 해당 업체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 업체들은 이날 현장 채용 및 면접 등을 통해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나서

전주시와 전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김남희)는 4일 CGV전주효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 방학 동안 이용 아동 돌봄에 애쓰는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종사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영화 관람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며, 힐링을 통해 얻은 공정에 너지가 이용 아동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도왔던 지역아동센터장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주 시장 및 전주시회의 의장 표창장 수여 식도 진행됐다.

/권희성 기자

제19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2025. 9. 18.(목) ~ 21.(일) |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

The poster features a vibrant illustration of a festival scene. On the left, a large red apple character is surrounded by people. In the center, there are various food items like a bowl of apples, a bottle of juice, and a plate of food. On the right, a large yellow cow character is depicted. The background shows a park-like setting with trees and a tent.